

교육 기회 분배 구조와 소득 분배에 관한 연구

조영달(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I. 서 언

지금까지 교육 연한과 학력을 포함하는 교육 기회와 소득 분배('경제적 지위'의 획득으로 대표되는)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은 교육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것은 특히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교육사회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들은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거나 연구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로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교육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라는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커다란 결함을 지닐 수 있다. 즉 미국 사회의 사회적 틀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과연 한국 사회의 현상 분석에 얼마나 적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또한 무엇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또는 같은 급(級)의 학교를 모두 같게 취급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과도 관련될 것이다. 한편 교육과 경제적 지위의 획득 사이에 위치하는 노동시장에 관해서도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통하는 채용 규칙은 우리 나름의 제도·문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우리 사회에 터한' 교육 기회와 소득 분배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우리의 연구들이 이에 대해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떠한 연구 과제들을

지니는가에 촍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글은 그 전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전제로 한다. 우선 이 글은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관심을 가진 일반인(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인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의 연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어떤 특정 부분에 제한된 깊이있는 연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전문가적 상식에 입각해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과 소득 분배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이 글은 한국 사회에 터한 연구의 필요성을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교육과 소득 분배에 관한 ‘일상적 삶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교육 기회의 점유에서 ‘경제적 지위’의 획득에 이르는 과정의 개략적 ‘이해’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상술한 바 이 글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의 과정 단계를 거쳐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획득해 나가는지 체계화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경제적 지위로 이르는 과정’은 몇몇 교육학자들¹⁾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터해 볼 때, 지금까지의 이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가 어떠했나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교육 기회의 분배와 소득 분배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으며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일종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을 참고하여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 분배와 교육 기회 분배의 관련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정책적 고려점을 찾기 위해 무엇을 더 욱 밝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 글의 결론 부분을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의 논의를 위해 우리는 한두 개의 개념을 조작한다. 이들 개념은 ‘경제적 지위’와 ‘교육 기회’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이 글에서 ‘경제적 지위’라 함은 임금이나 근로소득 및 직업 등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말하며, 어

1)이미나, 김기석, 진동섭, 문용린 등.

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이나 양도를 통해 취득한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은 이 글이 논의하고자 하는 경제적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부동산 등에 의한 부(富)의 획득에 대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직까지 일반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이러한 부(富)의 획득은 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관계를 밝히는 데 크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뒤집어 생각하면 오히려 이러한 것이 교육 기회와 소득 분배를 밝히는 더욱 중요한 측면일 수 있으나, 이것은 교육 만의 관련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이 글이 지니는 커다란 한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교육 기회’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하나는 양적인 측면으로서 학력(學歷)이나 교육 연한 등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질적인 측면으로서 학교에서의 학력(學力)(수월성)이나 학벌(學閥)(흔히 말하는 학교의 수준)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적인 측면은 국가의 교육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의무교육 연한의 확대와 장학금제도의 확충 등은 교육 기회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학교 자체의 교육 능력 등과 관련되는데, 학생 개개인이 자신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교육 기회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를 함수화하면 다음과 같다.

$$E.O. = f(se, ec)$$

$$f'(se) > 0, f'(ec) > 0$$

E.O. : 교육 기회, $f(\quad)$: 함수

se : 학력(學歷), 학교 진입, 교육 연한

ec : 학력(學力), 자신에 맞는 교육 여건

II.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과 경제적 지위의 획득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경제적 지위의 획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화나 각급 교육기관 및 각 단계가 지니는 경제적 지위 획득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여기서는 일종의 가설적 생각을 기초로 하여 교육과 경제적 지위 획득 사이에 걸쳐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몇몇 단계들을 체계화하였다.(뒤의 그림표 참조)


그러므로 다음에 제시할 교육과 경제적 지위의 획득 과정 모형은 사실상 어떠한 패러다임이나 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교육이 경제적 지위의 획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현상적 상황의 분석을 위해 가설적으로 교육의 과정에서 경제적 지위를 얻어가는 길을 정형화해 본 것이다. 이것은 몇몇 교육학자들의 동의를 받기는 했으나 이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 분배와 교육의 관계를 밝혀나가기 위해 우리 자신의 현상 파악이 중요하고, 여기서 연구를 출발 시켜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비추어볼 때 이 글의 전개를 위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획득하는 데에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대학의 수준 등은 다른 사회에서와는 자못 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고등학교에서의 학력(學力)과 대학 입학 선발 시험은 그 사회적 의미에서 외국의 경우와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의 역할 역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과외 수업이나 학원의 번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과 소득 분배를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와 관료 조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군의 형성과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 등을 선택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화된 조직과 체제를 지닌 산업들과 전근

대적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산업 및 성장 산업과 후퇴 산업들이 한 사회 내에 혼재해 있으며, 이들의 사원 채용 및 승진 방식과 직업 생활의 양상은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가지는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며, 개인의 경제적 지위의 획득과 관련하여 그 나름의

그림 : 교육의 단계를 거치면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에 접근, 이를 향유하면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학생은 각자 서로 다른 인적 특성(성별·계층별·지역별 등)에서 출발하여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의 선발 과정을 거쳐 고등 교육의 기회에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등 교육 즉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중등 학교를 거쳐 노동시장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개개인이 속한 지역·계층·성별 등과 각자가 받을 수 있었던 사교육은 각 단계와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III.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과 소득 분배 (경제적 지위의 획득):연구 동향

교육과 소득 분배에 관한 우리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주제들에 집중되어 있다. 즉 학교 교육의 팽창과 학력 상승의 원인, 교육의 사회 평등화에의 기여, 교육 기회 분배의 집단별 차이, 노동시장의 분단 등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다루어왔던 주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실증적인 연구의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과 경제적 지위 획득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면 우선 학교 교육의 팽창과 학력 상승에 대해 언급해 보자.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고등 교육의 규모는 선진국의 그것과 진배없다.(김승호, 1984 : 김종철, 1983 등) 예를 들어 고등교육 기관에의 취학률은 프랑스가 24%(1978), 서독이 25%(1978)정도인 데 비해 한국은 약 28%(1983)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의 교육 의식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 국민교육의 식조사(배종근, 1987)는 응답자의 80% 정도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를 그들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시키겠다고 답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아울러 60% 이상의 사람들이 학교 교육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준다고 믿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의 엄청난 교육열은 교육이 개인의 사회 이동의 기회를 고르게 해주고 경제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줄여준다는 믿음에 터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실제로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종근(1978)·박세일(1982) 등은 학력별(學歷別) 교육 수익률 비교에서 대학 졸업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음(박세일, 1982; 고등학교 8.1%, 대학교 11.7%, 1980)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밖의 연구들도 학력이 소득이나 직업 지위와 상당한 정도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경동, 1983; 김병성 외, 1982; 김영화, 1983 등)

그러면 학교 교육의 팽창과 학력 상승(學歷上昇)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박세일(1983)·김승호(1984) 등의 연구는 우리 나라에도 이미 과잉 학력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졸자 가운데에서 약 30%는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한 이론인 기술 기능 이론(과학 기술의 변화는 학교 교육 기간을 계속 늘어나게 함)에 대한 부인이기도 하다. 확실히 우리 사회는 단순히 기술 기능의 필요에 의해 학력이 팽창한 면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지위 경쟁의 한 통로로서 학력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경향을 지닌다 할 수 있다.(김신일, 1991)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하는 교육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조영달, 1989)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산업화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 및 정치·사회적 변혁과 시민 운동 등 이에 기인하는 교육의 사회 선발 구조에 대한 변화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와 비슷한 견해는 이미나(1991) 등에서도 발견됨)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는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여기서

교육에 관한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무엇이 교육 기회의 평등인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합의에 이르는 데 크게 참고할 연구는 거의 없다. 단지 김신일(1991)은 교육에 관한 평등관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한국의 현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선 허용적 평등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또한 보장적 평등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정책적 평등 보장의 노력을 의미하며, 의무 교육의 확대 등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은 교육개혁심의회의 결정 사항(1987)이나 의무 교육의 확대 노력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장적 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교육과정의 평등이나 보상적 평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보상적 평등관은 – 롤스(J. Rawls)의 견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 ‘잘못 추첨해서 태어난’ 저학습 학생의 경우 우리가 현상태를 중심으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redemptive egalitarianism)는 유형의 사고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교육 체제의 평등이란 그 실체가 없으며, 그것은 사회 체제의 평등 구조에 의해 결정될 뿐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교육이 단지 이러한 평등 구조를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Bowls & Gintis 등)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평등관에서 대부분의 우리 연구는 기회의 균등을 염두에 둔 허용적 평등관이나 보장적 평등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김신일 등, 1991) 그러나 최근의 교육개혁심의회(1987)의 보고서는 교육 과정의 세분화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교육의 평등에 관한 우리의 많은 연구는 대학 교육 기회의 분배가 중등 교육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중요한 연구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는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우선 지역별 차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배무기(1979)·중앙교육연수원(1981) 등의 연구는 학생의 대학 입학 인원(대도시, 약 16%; 그밖의 지

역, 약 5% 정도 : 중앙교육연수원 자료의 재구성), 대학생의 인구 구성비, 대학 재학생 비율(도시, 15% ; 농촌, 1.6%) 등의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대학 교육 기회의 점유율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또한 한정신 (1980) 등의 연구는 도시와 농촌 학생의 학력(學力)의 격차가 존재함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녀별 차이에서도 대학 재학생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자가 전체 대학생의 1 / 4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학 교육 기회의 점유에서 성별 차이도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김신일, 1991)

그리고 많은 연구들(유팔무, 1981 ; 정범모·김호권, 1977 등)은 계층별 교육 기회의 분배 역시 불평등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범모·김호권의 연구(1977)는 상위 직업 계층의 12.8%가 대학 교육 기회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9년의 경우 서울대학교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 구성비를 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41.6%였다는 사실(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79)도 이를 뒷바침한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 계층의 상층은 대학교육기회 자체를 크게 점할 뿐만 아니라 학력(學力)(또는 학벌)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두승과 손재숙(1982)의 연구는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서강대학교의 경우 농업 종사자를 부친으로 가진 학생의 비율이 평균 약 11% 정도인 데 반해 충북대학교·충남대학교·계명대학교 등은 평균 약 35% 이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결론적으로 교육 기회의 분배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교육 기회는 지역별·남녀별·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면 교육 기회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교육의 차이가 지위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 속에서라면 과연 교육은 사회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부통(Boudon, 1977) 등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극히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교육 기회의 확대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는 않으며, 또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감소되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부통의 모형을 이용한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유팔무, 1981)

그러나 교육과 사회 평등의 관계는 이러한 단순한 모의 분석으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처한 교육 기회의 구체적 분배 현황이나 이에 작용하는 구체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과 소득 분배에 대한 논의는 외국의 경우에도 중요한 연구의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에서는 실제로 인적 자본론자들이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일단의 논의의 모태를 제공하였다. 인적 자본 이론은 교육 기회의 확대는 경제적인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류 경제학의 신고전파적 사고 방식에 입각하여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한계생산성과 일치하는 임금 수준 및 동질적 노동을 가정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은 특정 직업의 기술 능력을 높여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도 가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성취할 수 있는 열려진 직업 취득 기회 구조를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음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소득 분배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인적자본론적인 생각에 대하여 회의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베르그(Berg, 1970)·젱크스(Jenks, credentialist : 1979)·라이트(Wright, 학력의 효과는 노동자 계층보다 자본가와 경영자 계층에서 크게 나타난다 : 1977) 및 김기석과 올네크(Olneck, 임금회수율 사용 : 1985) 등의 미국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인적자본론적인 생각에 대하여 회의적인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교육 기회를 향유했다면 이들의 경제적 지위 획득은 평등한가? 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의 연구는 부정적이다. 이미나(노동시장 분단과 교육의 임금에 대한 효과, 로그 리니어모델의 사용 : 1987)·이원덕(남녀 별 : 1987)·김미숙(남녀별 job segregation 현상 : 1984) 및 구혜근과 홍두승(계급별 : 1980) 등의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학력이 개인의 임금 상승

이나 승진 등의 직업 지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계급 등의 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여러 연구들은 노동시장의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으므로(예를 들어 좋은 노동시장, 나쁜 노동시장 : 공공 산업 부분, 중심 산업 부분, 주변부 산업 부분 등), 교육이 사회 이동(상승된 경제적 지위의 획득)에 주는 효과는 어디서나 같지는 않으며 노동시장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ecker, 1978 ; Featherman, 1981 등) 예를 들어 중심 산업 부분은 고도로 구조화된 위계 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통제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 부분 산업은 그 성격상 정치적 공정성이 표면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의 차별이나 인적 특성에 의한 차별은 비교적 적을 수 있으나, 그 결과 교육 수준은 승진과 임금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Averitt, 1968)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Becker(외, 1978)나 오육환(1983)의 연구는 노동 시장의 부문별 교육의 임금에 대한 효과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도 상당수의 연구들(이미나, 1989 ; 이원덕, 1987 등)이 이러한 세분화된 노동시장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교육 기회의 분배와 경제적 지위의 획득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을 논의해 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교육 기회의 질적 측면에 속하면서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채용의 중요한 한 요소를 구성하는 학력(學力)과 관련된, 그리고 학력(學歷)에서도 대학의 진입과 크게 관련된 학업 성취에 대한 연구들을 언급해 보자. 물론 이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의 집단간의 학업 성취 격차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학업 성취(주로 학교 성적에 의해 나타나는)는 상급 학교 진학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 분배와 직결되는 요인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중등 학교의 성적은 대학 진학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대학 진학 여부 자체와 진학한 대학이 속

하는 유형이 능력 척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의 배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 성별 및 계층은 이러한 성적과 커다란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은 도시와 농촌의 비교에서 이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재(1978)의 연구는 중학교의 경우 국·영·수의 점수가 대도시의 경우 평균 약 60%인 데 반해, 읍면 지역의 경우는 평균 약 50%임(국민학교의 경우 60%와 57%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김병성(1981)과 박명애(1981) 등의 연구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지역간의 학력(學力)의 격차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업 성취의 사회 계층간의 격차 또한 뚜렷하다. 정범모와 김호권(1977)의 연구는 국민학교의 경우 70점 이상의 학생 분포가 상층 학생은 31.3%, 중층 학생은 15.2%인 데 반해 하층 학생은 1.9%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역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여러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박명애, 1981 등)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구들은 왜 낮은 계층이나 농촌 출신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엇이 학업의 성취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학업 성취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이 진행되어 왔다. 인지 능력을 표시하는 지능, 사회문화적 배경, 학교 환경 등의 학교 외의 요인이나, 학교 시설·학급 규모 등의 교육 여건이나 교사의 기대 및 학교의 풍토(김병성, 1984)와 학교 문화 등의 학교 내 요인들은 바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개념들이다. 그러나 교사와의 대화 채널(communication style)의 차이, 부모의 기대의 차이, 일상생활적 관점에서 본 교실 수업의 실패 등은 설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점들이지만, 아직 깊이있게 연구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 기회의 분배 구조와 소득 분배에 관련된 여러가지 유형의 연구와 함께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의 대책들이 최근 들어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개혁심의회의 보고서는 교육 과정의 세

분화(교육개혁심의회 보고서, 1987)와 의무교육 연한의 확대(교육개혁심의회 보고서, 1987)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김신일(1991)은 성인 교육 기회의 확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IV.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 분배 구조와 소득 분배에 대한 연구와 연구 과제

1. 교육 기회 분배 구조와 경제적 지위 획득 : 불평등 분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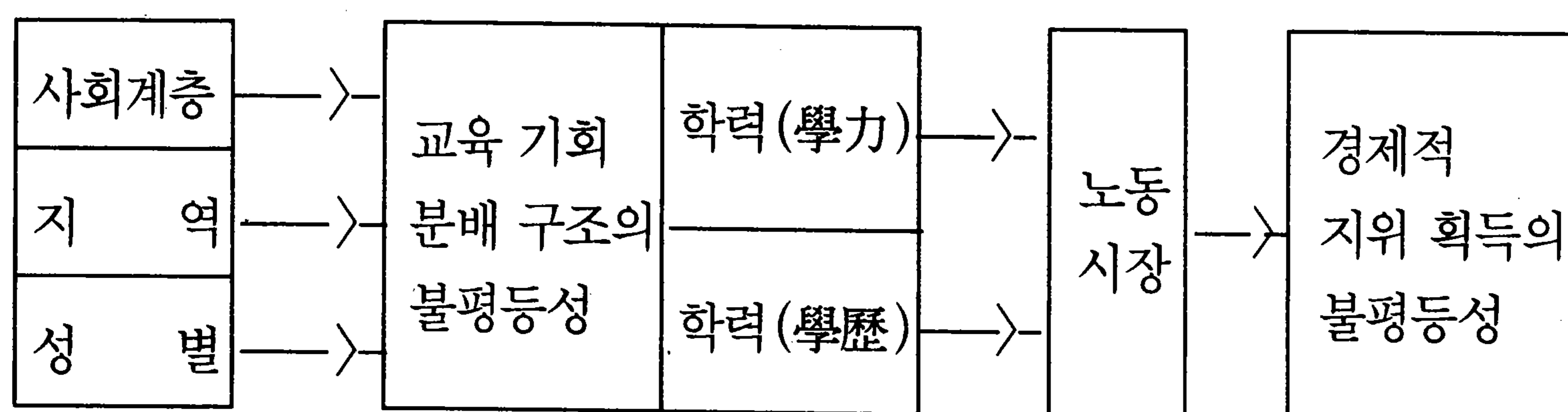
Ⅲ장에서 분석된 바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 분배 구조와 경제적 지위 획득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성별,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사회 계층은 교육 기회 분배 구조의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즉 남녀의 차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계층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분배는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학력(學歷)뿐만 아니라 학력(學力)에서도 나타난다.

서울대학교의 1992년도 신입생 현황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자가 전체의 79.1%이고, 여자는 20.9%이다. 또한 대도시 출신이 전체 신입생의 68.5%를 차지하며,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23.9%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문직과 경영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위의 상층에서 온 학생이 많은 학생 자신이 답한 가정의 경제 상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경제 상태를 많이 염려한 학생은 전체의 1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 기회 분배 구조의 불평등성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위 획득의 불평등성과도 연결된다. 즉 우리의 연구 결과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 기회의 획득이 낮은 경제적 지위로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서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즉 노동시장의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어떠한 산업이냐에 따라 교육 기회 분배 구조가 경제적 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이는 이미나(1987) 등의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난다.

그림 :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 분배와 경제적 지위 획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성별,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사회 계층은 교육 기회 분배 구조의 불평등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제적 지위 획득의 불평등성에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참다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삶에 터한' 많은 연구의 과제를 지니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 분배 구조와 소득 분배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연구 전통들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인적자본론적 접근 또는 갈등 이론 등은 우리의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상당수의 연구들 역시 이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기회 분배 구조 및 소득 분배에 관련된 일상적 삶의 세계는 이러한 연구들이 조명하지 못한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 ‘터’한 성격들은 이미 앞 장에서 언급되었다. 즉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 분배와 경제적 지위의 획득 과정은 사교육의 문제, 선발 시험의 문제, 학벌(學閥)의 문제,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 문제 등의 ‘우리에 터한 성격’들을 가진다.

이제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Ⅱ장과 Ⅲ장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I. 서언”에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 사회의 평등한 교육 기회에의 접근과 소득 분배(경제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는 연구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물음을 한번 더 깊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 학교 교육에서의 평등한 기회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육은 소득 분배(이 글의 “경제적 지위”의 개념과 나머지 부(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포함)의 평등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경제적 지위나 소득의 분배는 교육과 상관없이 개인의 인적 특성(예를 들어 그가 속한 계층)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 주장은 실제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이기도 하다. “결혼과 열쇠”的 이야기나 “학교의 골칫거리, 졸업 후의 황태자”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공감을 확신시켜 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는 아직 없다. 여하튼 이러한 주장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도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결코 평등화의 도구가 될 수 없다.(Bowls, & Gintis 등)”는 여러 사회결정론자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 우리는 다양한 여러 관점들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치된 양식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가짐으로써 일정한 정도의 평등화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유한 계층의 자녀나 가난한 계층의 자녀나 학교에서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며, 이는 그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은 어느 정도 심리적 평등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사회에 나와서 자신이 속한 계층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계층에 속한 학생도 그가 학교에

서는 부유한 계층의 학생과 같은 것을 배우며 같은 개념과 일정 유형의 정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심리적 평등감을 가질 수 있다. 확실히 학교 교육이 옛날의 노예와 귀족이 가졌던 괴리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또한 학교는 모든 학생을 학교 내에 일정 시간(한국에서는 비교적 많은 시간) 잡아둠으로써 부유한 계층이 그들의 경제력을 동원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평등화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워야 할 일정한 주제만 주어져 있고 학교제도가 없다면, 부유한 계층은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며, 사회적 선발 기능에서 그렇지 못한 계층의 학생에 비해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그것을 기초로 한 선발제도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열심히함으로써 선발을 통과하고 자신의 계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발 과정을 일종의 경쟁으로 생각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 유형의 정보 체계(이것을 학교가 가르친다고 가정하면)를 이것을 통해 갖추게 하는 데에는 이러한 학교 제도가 상당한 효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교육 기회의 평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교육 기회에의 평등한 접근이라고 보느냐는 우리 사회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보상적 평등 등에서 무엇을 평등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특히 교육 정책의 시행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한국 사회에서의 평등한 교육 기회에의 접근과 소득 분배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연구의 과제는 무엇인가? Ⅱ장에서의 “교육과 경제적 지위 획득 과정”的 성격을 중심으로 Ⅲ장의 연구의 검토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위한 어느 정도 자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노동시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교육 기회의 획득과 경제적 지위 획득의 상호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된 노동시장에서의 교육 기회 구조와 경제적 위치의 획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분화된 각 노동시장의 ‘채용 과정’과 ‘채용 규칙’에 대한 이해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지위 획득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이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의 연구자들도 충분히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도 크게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 획득을 위한 선발의 과정(대표적으로 대학 입시 등)은 매우 중요하고 다른 사회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시 문제의 유형과 내용 및 이에 접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접근 양식의 연구 등은 커다란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셋째, 학교의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철저한 이해 없이는 교육 기회의 한 측면인 질적인 면에 대한 언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도대체 우리들의 교실에서는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교실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언어학습 교실·사회학습 교실·수리학습 교실·예체능학습 교실 등으로 분류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취급되는 주제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교실에서의 상호 작용이 다를 수 있음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조영달, 1989 등)

넷째,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은 그 과정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도 교육의 효과와 소득 분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역할과 그것의 영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과 소득 분배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사교육의 문제를 좀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 기회를 누린 사람들의 최초의 직업 획득에서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그들의 계층 이동의 모습과 그들

의 점차적인 사회 생활과 사회 이동에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V. 결 언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의 분배 구조와 소득 분배(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어떠한 과제들을 지니는가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의 단계를 통해 노동시장을 거쳐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종의 틀’을 전제로 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우리는 IV장에서 본 바와 같은 결론과 몇 가지의 연구 과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는 이 글에는 많은 결함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교육의 단계를 거치면서 경제적 지위에 이르는 과정은 거의 가설적이다. 물론 몇몇 교육학자들의 스크린을 거치기는 했지만, 깊이있는 연구에 의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결함을 지닐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행해진 연구를 수합하고 검토하는 데서도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중요한 연구들이 상당수 제외되었을 수 있다. 이 점 역시 이 글의 커다란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의 분배 구조와 소득 분배에 관한 논의를 위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마도 이것이 이 글이 지니는 중요한 의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서론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부족은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일면 한국 사회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분야가 처해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말로 여기서(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확실히 교육 현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오늘의 한국 사회과학이 대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참고 문헌

- 김경동·최태룡,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계급 구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제3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3.
- 김기석, “교육과정 사회학의 발전 : 사회과학 파라다임 정립과 관련하여”, 『한국 교육문제연구』 제1집, 1983.
- 김병성, 「학교 학습 풍토와 학업 성취」, 교육과학사, 1984.
- 김병성 외, 「교육 격차의 관련 요인」, 한국교육개발원, 1981.
- 김승호, “과잉학력자의 사회적 성향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1984.
- 김신일,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동향”, 『한국교육문제연구』 제1집, 1983.
- 김영모, “한국 사회의 직업 구조와 그 변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 논문집』 제23 집, 1979.
- 김영화, “개인의 지위 획득 및 지위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학교 교육의 영향”(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1983.
- 나정·이혜영, 「도농 학교의 사회적 체제 비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83.
- 문교부, 『한국교육개혁 : 교육행정백서』, 1983.
- 박명애, “학년별 학업 성취에 대한 사회 계층 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여대 석사 학위 논문), 1981.
- 박세일, “고등교육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2)”, 『한국개발연구』 제4권 제4호 및 제5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82·1983.
- 박세일, “우리나라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4권 제3호, 한국개

- 발연구원, 1982.
- 배무기, “교육투자와 소득분배”,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 요인」(주학중 편), 한국개발연구원, 1979.
 - 배종근, 「교육투자의 과정화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1978.
 - 배종근·이미나 외,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학술진흥재단 보고서), 1987.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2년도 신입생 현황 자료집』, 서울대학교, 1992.
 - 유팔무, “세대간 사회이동과 교육기회 불균등”, 『한국사회학연구』 제5집, 서울대 사회과학연구회, 1981.
 - 이미나, “학업 성취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1980.
 - 이미나, “한국노동시장 분단과 교육의 임금에 대한 효과”, 「교육사회학의 탐구」, (김기석 편), 교육과학사, 1987.
 - 이종재, “사회계층과 교육 기회의 배분”,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82.
 - 정범모·김호권, 「청소년 조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77.
 - 조영달, 「경제교육교실 수업의 이해」(working paper), 1989.
 - 중앙교육연수원, 「대학입시에 관한 연구」, 1982.
 - 한정신, 「한국청소년의 교육격차연구」(숙명여대 박사 학위 논문), 1980.
 -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 연구 :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중심으로”, 『사회 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제3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3.
 - 홍두승,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82.
 - Althusser, R. P. & Kallerberg, A. L., “Firm, Occupation and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 *Sociological Perspectives in Labor Market* (T. Berg 역음), N. Y. : Academic Press, 1967.
 - Atkinson, A. B., *The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 Oxford Univ. Press, 1983.
 - Averitt, R. T., *The Dual Economy : The Dynamics of American Industry Structure*, N.Y. : Horton, 1968.
 - Becker, E. M. 외, “Stratification in a Dual Economy : A Sectoral Model of Earnings Determ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권43, 1978.

- Berg, Ivan, *Education and Jobs*, N. Y. : Prager, 1970.
- Bowls S., & Gintis, H.,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 of Economic Life*, N. Y.: Basic Books, 1976.
- Featherman, D. L.,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3권 3호, 1981.
- Freeman, R., *The Overeducated America*, N. Y. : Academic Press, 1976.
- Jenks, Christopher 외.,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 Y. : Basic Books, 1979.
- Kim, Ki-Seok, *A Preliminary Study of the Korea Female Labor Force 1960~1980* (Ph.D. Dissertation in Univ. of Georgia), 1984.
- Koo, Haegen & Duseng Hong,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권45, 1980.
- Lee, Won-Duck, *Earnings Distribution and the Role of Enterprises in Korea* (Ph.D. Dissertation in Boston Univ.), 1987.
- Olneck, Michael & Kim, Ki-Seok,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Income*(Unpublished Manuel), 1985.
- Oook Whan O, *Education and Personal Earnings Determination: A Synthetic Approach*(Ph.D. Dissertation in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83.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 Mass., : Harvard Univ. Press, 1971.
- Wright, E. O. & Perronne, L., "Marxist Categories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권 42, 1977.